

(가칭)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

보도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.

보도자료	(사)탁틴내일(사무국)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
	(사)들꽃청소년세상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
	십대여성인권센터	조진경, 권주리	02-6348-1318
	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	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
배 포 일	2015년 5월 18일		
매 수	총 2매		
공동 주관 단체	(사)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, (사)두루, (사)들꽃청소년세상, (사)탁틴내일(사무국), (사)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, (사)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, (재)동천,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,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,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, 세상을품은아이들, 수원여성의전화, 십대여성인권센터,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,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,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, 다시함께상담센터		

“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, 엄정한 처벌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!”

-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-

(가칭)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(이하 ‘공동행동’)이 2015년 5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희생당한 청소년을 추모하고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.

- 지난 3월 26일 관악구 모텔에서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은 청소년 성착취로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.
- 해당 사건은 성매수자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, 채팅사이트 운영자, 모텔업주 등이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며 가출위기의 청소년들을 성착

취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.

- 이에 17개 청소년·여성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주관 단체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단체가 청소년 성착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고 (사)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아 ‘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’을 발족한다.
- 공동행동 발족식은 10시 추모묵념으로 시작하여 성명서와 발족 선언문 낭독과 참여자의 발언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. 그리고 ‘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’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 한다.
-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이 날 있을 관악구 성착취 피해 청소년 살해사건 피고인의 두 번째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.
- 앞으로 공동대책위는 공동성명서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밝히듯이 해당 사건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성매수자와 알선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, 청소년 성매매관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실무 개편을 촉구함과 동시에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규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그리고 전담체계를 통한 예방 및 피해자 구조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할것이다.
- 그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살해 및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.

붙임 : 1. 공동성명서
2. 발족선언문
3. 기자회견 일정표